

“더 간다 vs 고점이다”… 반도체 랠리 속 차익실현 눈치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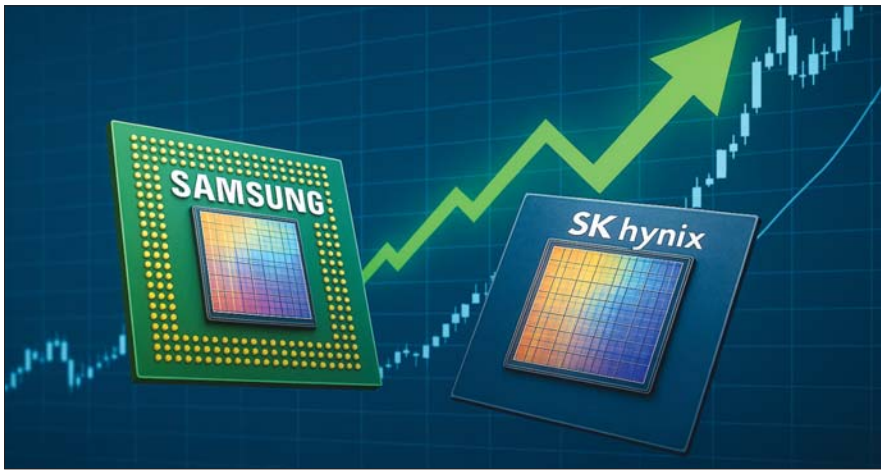
‘11만전자·60만닉스’ 시대

반도체 전문가 “아직은 팔 때 아냐”
빅테크 기업, B2B 구조 AI 투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호황 전망
증권사, 양사 목표주가 상향 조정
업황 사이클보다 선고점 형성 주의

‘11만 전자(삼성전자 주가 11만원), 60만 닉스(SK하이닉스 주가 60만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60만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장중 60만원 선을 돌파했다. 이날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10.91% 오른 6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서도 종가 60만원 돌파를 기정사실로 보고 오전부터 목표 주가를 100만원까지 높여 잡았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장중 11만1500원을 기록,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쌍끌이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 속에 주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10만원을 넘어섰지만,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는 전날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반도체 호황 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 이미지.

다 3.35% 오른 11만1100원에 마감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기)을 타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2위 기업이 연일 질주하는 가운데, 두 기업의 합계 시가총액은 지난달 21일 장중 1000조원(우선주 포함)을 돌파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언제쯤 수익을 거둬들이면 되는지로 모이고 있다.

◆반도체 투톱 ‘코스피 4000시대’ 이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256.53%, 삼성전자는 108.83% 올랐다. 작년 말 기준 두 회사 시가총액은 합계 400조원대였지만, 현재 두 배 넘게 불어났다.

5월 말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6월부터 오름세를 타더니 9월 이후 AI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곡선이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

두 종목을 투자 바구니에 담아놓은 투자자 대부분은 현재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4분기 들어 개인은 SK하이닉스 주식을 3조4787억원어치 사들였다. 이 기간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이다. 2위 한화에너지(7279억원)와 격차도 크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도 SK하이닉스를 1조2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10월 이후 수익률만 78%가 넘는다는 회사원 이모(43)씨는 “평균 매수 단가

가 23만5000원인데, ‘50만닉스’까지는 팔고 싶은 유혹을 잘 버렸는데 막상 ‘60만닉스’가 현실이 되니 심각하게 고민된다”며 “SK하이닉스를 가진 주변 동료 대부분이 (언제 팔지) 눈치 게임 중”이라고 말했다.

◆개미들은 고민이다, 팔자니 아깝고 사자니 부담되고

반도체 업황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번 수퍼사이클은 진짜”라며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본다. 과거 2년 주기로 등락했던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은 모바일과 PC, 가전 등 소비자 중심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등 AI 관련 투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B2B(기업 간 거래) 수요라는 점에서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런 배경 속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SK증권은 이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100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말 기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55만9000원 선이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반도체 분석 보고서를 내고 “산업이 바뀌었으면 기업가치 평가의 방

법론도 바뀌어야 한다”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08% 오른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도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제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84만원까지 끌어올렸다. 노무라는 SK하이닉스의 2026년,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38%, 46%씩 상향 조정한 99조원, 128조원으로 추정했다.

KB증권과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각각 15만원, 17만원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삼성전자 내년 예상 최대 영업이익(D램 평균 판매단가 전년 대비 26% 상승)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조정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와의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팩토리 구축 협력으로 메모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 사이클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2000년대 이후 몇 번의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하기 약 6~9개월 전 주가는 고점을 형성한 후 먼저 꺾인 적이 많았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글로벌 엔터테크 도약… 몸값 적정성은 ‘글쎄’

IPO 간담회

더핑크퐁컴퍼니

핑크퐁, 아기상어 등 글로벌 IP 보유
코스닥 도전장… 희망가 최대 3.8만
비교군에 산리오 등 수익성 격차 논란

핑크퐁과 아기상어, 베베핀 등의 지적재산권(IP)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더핑크퐁컴퍼니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희망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산리오, 드래곤볼 등이 비교군으로 선정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거론되고 있지만, 더핑크퐁컴퍼니는 글로벌 엔터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더핑크퐁컴퍼니 대표(사진)가 3일 서울 여의도 CCMM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핑크퐁컴퍼니는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쌓아온 IP 성공 경험과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엔터테크 기



업으로 도약하겠다”며 향후 기업비전과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 설립된 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 ▲호기심 ▲베베핀 ▲썸룩 등 글로벌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 콘텐츠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는 60개월 연속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설립 초기부터 ‘Born Global’ 전략을 기반으로 244개국·25개 언어 현지화 체계와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해 왔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해외 매출 비중 76%, 콘텐츠 매출 비중 68%, 영업이익률 약 20%를 기록했다.

다만 성현동 KB증권 연구원은 “해외 매출 비중이 2024년 74.2%, 올해 75.6% 수준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 특정 영상 플랫폼의 과점화에 따른 콘텐츠 공급자의 협상력 약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공모가를 두고 적정성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회사는 희망공모가를 3만2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핑크퐁컴퍼니는 주당 가치 평가를 위해 이미 상장돼 있는 유사 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EV/EBITDA)을 사용했는데, 비교군으로 ▲SAMG엔터(티니핑 등) ▲카도가와 ▲산리오 ▲토에이애니메이션 등 4개사를 선정했다. 캐릭터 IP 중심 기업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규모와 수익성에서는 격차가 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산리오의 시가총액은 약 14조원대로, 4600억원에서 5400억원대로 예상되는 더핑크퐁컴퍼니와 비교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할인율도 보수적으로 적용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핑크퐁컴퍼니가 적용할 할인율은 28.67%~15.30% 수준인데, 지난달 1일 상장한 명인제약은 47.6%~32.4%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박현주 회장, 서울대에 26년간 53억 기부 <미래에셋그룹>

서울대, 박 회장에 감사패 증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서울대학교에 26년간 52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한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3일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31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감사패 증정식을 열고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이어온 박 회장의 나눔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지속적인 인재 육성 노력을 기렸다.

박 회장은 “배움의 여정은 도전에서 시작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실현해가는 여정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난달 31일 유홍림 서울대 총장(왼쪽)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총장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한 용기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신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인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든든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운용 ‘KODEX 200’ 순자산 증감 1위

4.9兆 기록… ETF 중 최고액 증가

삼성자산운용은 2002년 상장한 ‘KODEX 200’이 올해 들어 순자산 증감액 4조9604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ETF 가운데 올해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순자산 10조원에 돌파하며 국내 주식형 ETF 1위의 자리를 수성

했다.

해당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을 필두로 인공지능(AI), 전력, 조선, 방산, 원자력 등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어 가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로 자금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1조원을

돌파해 1조932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로 투자자들에게 입소문을 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한 몫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KODEX 200 ETF 역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연초 이후 85.3%라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상장 이후 1064%(10배)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했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한국서부발전 SLB 단독주관

<지속가능연계채권>

총 15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KB증권은 한국서부발전이 지난달 31일 발행한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을 단독 주관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은 5년 만기 600억원 규모의 SLB를 포함해 총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국내 공공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이 이어 두 번째 SLB 발행 사례다.

SLB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

지배구조 개선) 채권 중 하나로, 발행사가 사전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서부발전이 발행한 SLB는 2018년 대비 2027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2.4%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금 상환 시점에 10bp(1bp=0.01%포인트)의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신하은 기자